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올곧은 서원은 그 자체로 찬탄이요 예경입니다. 이렇듯 오대산 가득한 청명한 기운이 많은 불자님들의 노래 소리에 실려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더욱이 2016년 전국불교합창제가 열리는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곳이기
에 의미 또한 깊고 각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불교문화가 넓게 자리하고, 불교문화 없이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민족문화의 중심에 있는 불교의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불교합창 소리가 세계인의 축제의 서막을 연다는 의미로서도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대산 월정사 사자암 중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이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의 선지식이신 한암, 탄허 대종사께서 수행과 후학지도
를 펼치신 소중한 도량이기때 사부대중의 정신적 귀의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지에서 열리는 합창제를 통해 오대산에 생생한 선대의 수승함이 우리를 넘어 세계 방방곡곡을 밝게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청명한 기운속에서 불제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큰 울림으로 부처님을 찬탄
하기에, 마음까지 풍요로운 계절을 성취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합창 축제를 준비하신 전국불교합창단 연합회원들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심으로 지도편달하시고 후원해주신 월정사 주지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합창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되고, 우리들의 열정 넘치는 울림처럼, ‘하나 된 열정’
으로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인류사에 큰 성취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어 더욱 희망찬 세상,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